

# 전남교육청, 코로나19 확산 차단 학교장 '영상회의' 개최

### “교사들, 원격·등교 수업 ‘내실화’에 더욱 만전 기해야”

###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간 맞춤형 피드백 활성화 필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속에서 2학기를 시작한 일선 학교에 아이들 건강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및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장석웅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전남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도내 일선 학교 현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유·

초·중 3분의 1 등교, 고·특 3분의 2 등교, 고3 및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농산어촌 소재 학교 밀집도 조치 제외)를 지키며, 원격·등교수업 내실화를 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전체 등교가 무산됨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큰 만큼 일선 학교 교사들이 원격·등교 수업 내실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간 맞춤형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미래형 수업 모델 개발과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날 오후 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상회의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 압박에 따른 입시지도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진로·진학 지도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됐다.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순천시의 사례를 들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 및 상시연락 체제 유지가 학교현장의 감염 확산 차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초



기 긴급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세 차례 영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서 방역과 수업, 생활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위로하고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환기자

## 화순오성초, '독서 습관 통해 스스로 학습 능력 길러주기'

### 독서 통한 문해력 향상과 학습결손 문제해결 노력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이숙)는 1일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열쇠는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를 강조한 바가 있다.

이에 화순오성초는 1학기 교육과정 반성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학습결손 문제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2학기를 운영하기로 정했다.

화순오성초 교사들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지난 8월 27일에 동강초 김인경 교감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날 연수는 화순오성초 교사들이 학생 독서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독서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

여 두 시간 동안 사례 중심의 독서 교육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림책 '알사탕'을 활용하여 실제 독서 교육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사들의 독서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수를 받은 후 교사들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교육을 전개하였다.

4학년 1반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 중 긴급 돌봄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 심은 사탕수수 관련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콤한 나무 사탕'이라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국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수업은 학생 18명 중 등교한 학생 9명은 교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가정에서 ZOOM을 활용한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사탕수수에 대한 지식이 없던 학생들은 그림책을 통해 사탕수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사탕수수밭에 가서 관찰한 뒤 맛을 보기까지 했다. 4학년 이OO 학생은 '처음에 사탕수수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탕같이 생긴 열매를 먹는 줄 알았다. 나보다 키가 큰 사탕수수를 보고, 즐거울 줄라서 맛을 보았다. 그림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단맛과는 다른 색다른 달콤함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 광주 광덕고, '로봇 챔피언십 대회' 디자인 1위

광덕고가 FEST 창의공학교육협회의 주최로 지난 8월27일 개최된 '2020년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대회'에서 로봇 디자인 분야 1위(전자신문사 사장상)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광덕고 '오소프 팀'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 자율 주행의 정확성을 향상시킨 로봇을 제작했고 디자인 분야에서 우승을 거뒀다.

지난 2015년부터 SW(AI) 선도학교로 지정된 광덕고는 앱 제작, 3D프린팅, 게임 제작, 로봇 연구, 아두이노 연구 등 SW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난 2018년부터 실시한 교육 봉사 활동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SW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써 SW(AI)교육 선도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왔다.

특히 광덕고는 올해 하반기에 광주광역시 서구청과의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FTC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우승팀인 '오소프 동아리' 학생들이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FTC 교실'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참여해 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역 내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조인호기자

## 담양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2일 담양 마을학교 교사(활동가)를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문해능력 기르기 역량강화 연수(8차)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문해능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책읽어주기 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마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 책 읽어주기는 왜 중요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읽어주기에 좋은 도서는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안

내 하였으며, 또한 그림책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읽어주는 방법과 발문법을 익히면서 학생들이 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었던 자리로 마을교사들의 실천의지를 북돋울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마을학교에서는 이번 연수에서 책읽어주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었으며 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책읽어주기'를 필수로 넣어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